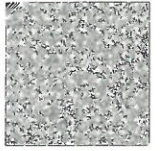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366호 2021년 11월 14일(나해)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연락용 바코드



발행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입당송 | 예레 29,11,12,1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재앙이 아니라 평화를 주노라. 나를 부르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고, 사로잡힌 너희를 모든 곳에서 데려오리라.

제1독서 | 다니 12,1-3

화답송 | 시편 16(15),5와 8,9-10,11(◎ 1 참조)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다.

○ 주님은 제 뒤통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

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 히브 10,11-14,18

복음환호송 | 루카 21,36 참조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복음 | 마르 13,24-32

영성체송 | 시편 73(72),28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황경원 안드레아 신부 | 사회사목국 국장

유일한 탈출구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감염병 시대의 그리스도인)

작년에 눈이 펄펄 내리던 날 아침, 서울역을 지나던 한 사람이 커피값을 청하는 노숙인에게 돈은 물론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까지 벗어서 그에게 걸쳐주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장면은 각자도생(各自圖生)에 몰두하던 우리에게 몽클한 감동을 주며 회자되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이 되어가지만, 전 인류는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 우울한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도 의료인, 방역인, 미화원, 돌봄 노동자, 배달 노동자 등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에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삶을 지탱할 수 있음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고 고마움과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마르 13,27)

오늘 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선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심지어 사회의 약자들을 당신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

이라고 가르칩니다.(사목현장, 1항 참조)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9-37)에서 초주점이 되어 쓰러져 있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많은 고통과 상처 앞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것입니다.”(모든 형제들, 67항)라며 행동에 나서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제5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인 오늘,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스며들도록 다짐하고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실천적이고 더욱 긴급한 결론을 내려서, 공의회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웃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또 하나의 자신으로 여겨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웃의 생활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들을 보살펴야 한다.”(사목현장, 27항)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오늘 담화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복음화 시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참 얼굴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 가난한 이들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마르 14,7).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과 소외를 덜어주고 잃어버린 그들의 존엄성을 되찾아주며 그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 통합을 보장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마르 13,31)

거친 산길을 힘겹게 걸어 오를 때 멈춰서지 않게 나의 등을 밀어주었던 힘은 항상 내 곁을 지켜주었던 믿음입니다. 늘 한결같은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감싸고 지켜줍니다.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입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말씀의
마음 이삭

알았습니다. 하느님!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
당신 손이 저를 이끌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시편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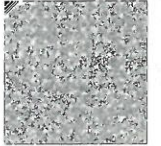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뜻내기 신앙인인 저는 “에이, 설마.” 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비교하기 죄송하지만, 마치 토마스 성인처럼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당신만의 교묘하고 통쾌한 방법으로 제게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경험이 셀 수 없이 많지만, 그중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여 년 전 교중미사에 참여하는 도중 전례단의 입당 모습을 보며 느닷없이 “얼마큼 신앙심이 깊으면 저런 봉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본당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례단에서 새로 봉사할 신자를 찾는 데 현 전례단의 신자가 저를 추천하셨다는 얘기였습니다. 세상에!?

“누가 저를 추천하셨죠?”

저를 추천하셨다는 신자분을 소개받고 보니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어느 날 새벽 미사를 끝나고 나오는 길에 당신 눈에 제가 클로즈업되어 보였답니다. 매일 새벽 미사를 나오는 신자면 전례단의 새 멤버로 영입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를 추천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불경스러운 저의 마음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가장 유쾌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저의 발목을 잡으심을 느끼는 순간, “알았습니다. 하느님!” 저절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현업에 있을 때라 분초를 아끼며 살아갈 때였으니, 과연 제가 전례단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장명숙 안젤라메리치
유튜브 크리에이터 말라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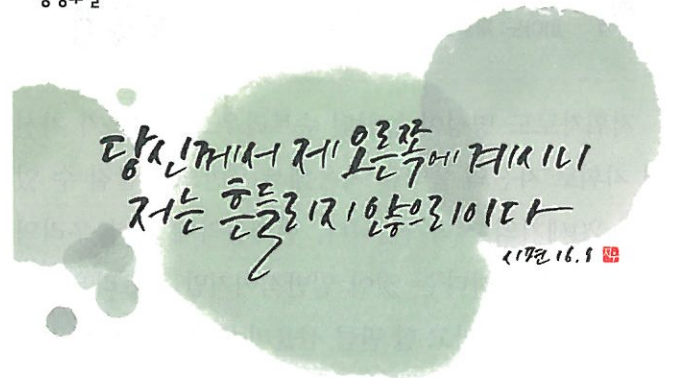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억지로라도 기도를 올리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제 안의 의구심을 떨쳐주시고 저의 믿음이 자라나게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제가 전례단원으로 모범적으로 주님이 주신 신성한 기회를...”

좋은신 주님 덕분에 사회 활동을 하면서 전례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 무사히 끝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주 가끔씩은 “정말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좋은신 주님은 당신만의 방법으로 스쳐 지나가는 제 생각을 보시고 가장 정확한 때, 적합한 방법으로 당신의 존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젠 성경을 읽을 때 의구심이 들거나 미사 중 분심이 들면 즉각 제게 저 자신이 경고를 합니다. ‘우주 안의 먼지 같은 존재인 제게 언제 또 좋은신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존재를 느끼게 하실지 모르니 조심하자.’고요.

나를 이끄는
성경구절



2019. 10. 8

김지우 크리스티나
수원교구 수자성당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위령의 날 (Allerseelen)>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심의위원

서울주보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많은
<음악칼럼>을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시인 헤르만 폰 길름(Hermann von Gilm)은 그의 시 '위령의 날(Allerseelen)'에서 '... 모든 무덤에 오늘은 꽃이 피고 향기롭네, 일 년 중 하루는 죽은 영혼이 자유로우리니...'하고 노래합니다. 해마다 11월 위령 성월, 특히 11월 2일 위령의 날에는 길름의 이 시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 독일)가 곡을 붙인 독일 가곡 '위령의 날'을 찾아 듣게 됩니다. 종교적 의미 보다는, 먼저 세상을 떠난 이와 함께했던 사랑스러운 시간을 추억하는 내용인데, 잔잔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념에 젖게 합니다.

예전 음악 해설서를 보면 '위령의 날'에 해당하는 독일어 'Allerseelen'의 우리말 번역이 독일어만큼이나 낯선 단어, '추사이망침례(追思已亡瞻禮)' 또는 '만령절(萬靈節)'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바로 '위령의 날'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는 귀를 쫑긋한 것처럼 속 시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리톤: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Dietrich Fischer-Dieskau)
피아노: 제럴드 무어(Gerald Mo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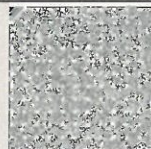
지휘자로도 명성이 높았던 슈트라우스는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자신의 음악을 녹음해서 음반으로 남길 수 있었던 20세기의 작곡가입니다. 현대음악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은 '난해하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슈트라우스의 음악은 낭만적이라고 할 만큼 선율미 넘치는 작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기 낭만파의 마지막 주자로 일컬어지죠. 그는 당대 작곡가로서는 독특하게 오페라를 많이 작곡했

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장대한 교향시, 관현악곡을 여러 편 작곡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 목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르가 바로 150여 곡에 달하는 '가곡'입니다. 피아노나 관현악 반주로 불리는 그의 가곡은 선율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특히 <내일(Morgen)>이라는 가곡은 아름다운 선율 때문에 바이올린이나 첼로로 편곡되어 자주 연주되지요. '독일 가곡(Lied)'이라면 슈베르트, 슈만만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후대에 이런 작곡가가 독일 가곡의 한 축을 든든히 받치고 있었음을 알고 나면 클래식 애호가로서 흡족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슈트라우스의 1885년 작품 <8개의 가곡집> 작품 번호 10번(op.10)에 수록된 '위령의 날'을 들으면서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는 비단 죽은 이들만을 위한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올 죽음을 생각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다 가고 싶습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싸늘해지며 마음이 쓸쓸해지기 쉬운 가을, 우리 안에 고이 접혀 있는 겸손을 꺼내 따뜻한 외투로 걸쳐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톤의 노래에 이어 같은 곡을 소프라노의 음성으로도 감상해봅니다.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Elly Ameling)
피아노: 달튼 볼드윈(Dalton Baldwin)



아름다운 교황님 방문 4박 5일을 기록한 서울주보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2014년 새해가 되고 얼마 뒤 교회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대주교가 우리나라의 세 번째 추기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을 방문하신다는 소문이 교회 내에서 조심스럽게 퍼졌습니다.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1989년 서울 세계 성체대회로 방한한 이후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경사가 될 터였습니다.

소박하고 격식에 덜 얽매인 자유로운 새 교황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국내의 교회 소식란도 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일정과 메시지 등으로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교황청은 2014년 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교황님의 방문은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들의 시복식과 대전교구에서 열리는 아시아 청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8월 중순은 보통 교황님의 여름휴가 기간인데 휴가 대신 한국 방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교황님의 방한은 서울주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주보는 정확하고 유익한 교황 방한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특보 제작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주보팀은 교황청의 홍보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황님의 동정과 말씀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방한 준비위원회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신자들에게 소상하게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서울주보 특보 1호는 4월 27일에 발행되었습니다. 1면에 말씀과 함께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교황님의 인상적인 사진을 실었습니다. 2~3면에는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의 “교황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교회사상”이란 주제로 인터뷰 기사도 준비했습니다. 염 추기경은 추기경 서임식 때 있었던 에피소드도 소개했습니다. 공식 발표 전이지만 이미 교황님께서서는 한국 방문을 결심한 상태라 전례 중 염 추기경에게 인사를 하는 짧은 외중에도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고 했고 염 추기경도 “우리 한국인들도 교황님을 사랑한다.”라며 답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4면에는 교황방한준비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로마에서 4월 초에 있었던 전례, 홍보회의 과정과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님의 부탁 말씀도 소개하고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문과 서울대교구 홍보국이 제작한 로고 발표와 해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교황 방한 특보는 2014년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마다 발간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중요한 자료집 역할뿐 아니라 서울주보는 특별한 언론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6월 29일 서울주보 특보는 다른 언론에서 보기 힘든 교황청 대변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님>과의 인터뷰 기사를 싣기도 했고, 8월 15일 서울주보에 게재된 염수정 추기경의 “교황님께 드리는 편지”는 유명 일간지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8월 31일의 특보는 4박 5일간의 모든 일정을 사진과 메시지로 보여주는 하나의 아름다운 사진첩이었습니다. 교황 방문을 통해 당시 서울주보의 자긍심과 책임감은 아마 최고의 상태로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교황 방문 특보들만으로 책을 엮으면 아마도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책이 출간될 것 같은 생각은 너무 과장된 생각일까요?



- 가정의 의미와 역할 2 -

그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인간은 사별, 이혼, 미혼 임신, 그 밖의 사고 등의 외적 경험이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감정의 상처 혹은 내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더구나 이런 상처와 함께 한부모 가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한부모와 그 자녀는 주변의 왜곡된 시선으로 더 큰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한 내면적인 치유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목이 이루어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교회가 혼인과 가정 안에서 이루는 부부의 일치와 남녀의 상호보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이혼한 사람들이나 한부모 가정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을 멀리 내버려 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손길을 내밀고 더욱 강하게 끌어안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교황청은 「이혼한 뒤 재혼한 사람들에 대한 사목」(1997)이라는 문헌을 통해 성사에 대한 준비와 거행의 지침 상기, 혼인에 실패한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교회의 아픔, 홀로 된 이혼자들에 대한 권고, 재혼한 이들에 대한 권고, 성체 신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 죄의 의미에 대한 묵상을 통한 화해성사로 인도할 것, 통회와 영적 치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도록 할 것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한부모 가정 발생 원인과 그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들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먼저 바라보고, 그들이 '품위 있는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부모 가정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선입견 없이 그들을 만나며 그들이 겪는 혼란과 고통이 치유될 수 있도록 공동체적인 이해와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끈기와 관용을 갖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교육 활동과 전례 등으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치유를 위한 사목적 배려가 되어야지 단순한 동정이나 자신이 주체가 되려는 욕심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한부모 가정은 그저 지키지 못한 가정이 아니라 시련과 상처를 이겨내고 충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공동체의 한 지체이기에 교회는 그들을 품어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추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키우는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포함하여 사목자들과 신자들은 한부모 가정을 포함한 상처받은 가정이 치유를 얻고 그들이 신앙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석준 레오신부 | 혜화동 성당 부주임

더크고 더앞선 학교! 동성고등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Q1) 동성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후기 일반고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시면 되기 때문에, 서울시 거주 중3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 거주 중3 학생 지원자 중에서 학교 정원의 60%를 교육청에서 추첨하여 본교에 배정합니다. 본교는 기숙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통학 거리에 대한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입사생 60명 선발 예정, 기숙사 입사는 통학 거리, 중3 성적, 학업 계획서로 평가하여 선발)

Q2) 학비와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교육 과정의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전문 교과를 늘렸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됨으로써 자율형 사립고 프로그램에 따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예신반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A) 인문중점교육과정 안에 예신반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가미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성고등학교 홈페이지 www.dongsung.hs.kr

입학 문의 02)3671-9201~4 혹은 카카오톡 채널

동성고등학교 설명회

소규모 설명회 4차: 11월 26일(금) 오후 7시, 교내 시청각실
(신청 기간: 11월 21일까지)

대규모 설명회 영상은 학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SNS 안내

서울대교구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mmu.seoul>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seoul.catholic>



바티칸뉴스

↳ 홈페이지 <https://www.vaticannews.va/ko.html>

↳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arqMs



갤러리1898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gallery1898>

↳ 가톨릭미술이야기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catholic.artstory>



순교자현양위원회

↳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YysWd?from=qr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omar_seoul

↳ 유튜브 <https://bit.ly/3BEEnaY>



노동사목위원회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labor.caritas>

↳ 페이스북 <https://m.facebook.com/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654988851288847>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홈페이지 <http://www.wm.or.kr>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seoulwurinong>



경찰사목위원회

↳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mxcvqT



사회교정사목위원회

↳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QpgxjK



환경사목위원회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ecocatholicpage>



정의평화위원회

↳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eZUxdC



한국중독연구재단 카프성모병원(사회사목국)

↳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ximxmzu



생명위원회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vitavia.seoul>



민족화해위원회

↳ 홈페이지 <http://www.caminjok.or.kr>



청소년국 유아부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catholic_yua

↳ 유튜브 <https://bit.ly/2XPNpay>



오늘(11월 14일)은 제5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14대 서울대교구장 착좌식 준비위원회 위원 임명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10월 28일 오후 7시(한국시각)에 서울대교구 보좌주교인 정순택 주교님을 제14대 서울대교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희송 주교(총대리 겸 가톨릭학교법인담당 교구장대리) 부위원장: 유경춘 주교(동서울지역 및 사회사목담당 교구장대리), 구요비 주교(중서울지역 및 해외선교담당 교구장대리)

집행위원장: 정영진 신부(교구 사무처장) 위원: 사제평의회 위원(위원 전체 40명), 최호영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겸 명동 주교좌 성음악담당), 장경진 신부(사무처 행정실장), 이길재 신부(명동성당 부주임), 권순형 신부(사무처 성직자실장), 전호엽 신부(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김동주 신부(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부회장), 백인실 수녀(여자수도회 장상협의회 회장), 손병선(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김효철(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석남연(서울대교구 가톨릭 여성연합회 회장)

제14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위한 기도 봉헌

서울대교구 제14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신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의 착좌미사를 12월 8일(수), 명동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각 본당과 기관에서는 착좌식이 거행될 12월 8일(수)까지 신임 교구장을 위하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위한 기도'를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건설업체(신축, 리모델링) 정규 등록 신청 안내

등록신청기간: 11월 15일~12월 10일 자격 및 서류제출, 심사, 등록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천주교 서울대교구(https://aos.catholic.or.kr) 홈페이지 교구정규등록건설업체, 가톨릭인터넷 굿뉴스(http://www.catholic.or.kr) 홈페이지 하단 '교구란의' '교구정규등록 건설업체' 참조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27년 11월 19일 손성재 야고보 신부(50세)
• 2002년 11월 16일 박병윤 토마스 신부(75세)
• 2016년 11월 20일 김대군 파트리치오 신부(77세)
• 2016년 11월 21일 김정직 디오니시오 신부(75세)
• 2019년 11월 17일 오기오 요한크리스토토모 신부(68세)
• 2019년 11월 18일 박성구 요셉 신부(70세)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위한 기도

+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서울대교구에 새 교구장으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원과 평화의 사도로 파견된 주님의 일꾼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에게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착한 목자 되게 하소서. 또한 하느님을 향해 함께 걷는 여정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저마다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이끌어 주소서.

-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과 성 요셉님,
● 저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성인성녀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염수정 추기경 인준 2021. 10. 28)

교구청알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내 마음의복날 본당 갖기 미사)
때, 곳: 1294차 미사 11월16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 주 기억할 본당: 함흥교구 계림 본당, 회령 본당, 나진웅기 본당 / 문의: 02)727-2420
유튜브로 실시간 미사 시청 가능: 매주(화) 19시(유튜브 앱 실행 -> '명동대성당' 미사 검색)

시복시성 기원미사

이달의 하느님의 종 '김덕심 아우구스티노'
때: 매달 셋째주(화) 11월16일 오전 10시(168회)
곳: 절두산 순교성지 성당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참석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당일 선착순 마감)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갤러리1898 전시안내 / 문의: 02)727-2336

손예은 도자 작품전: 1전시실
허욱 개인전: 2, 3전시실
전시일정: 11월17일(수)~22일(월)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1~2022년 상반기 영성심리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
교육명: 영성심리특강, 기도동반, 영성심리집단상담, 영성심리독서모임, 피정 등(온라인 수업)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pcc@seoul.catholic.kr)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8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여성소위원회

정기 세미나 개최 안내
주제: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마태 2,21) (요셉의 해를 맞아 성찰하는 부성과 모성 그리고 사회적 돌봄) /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때: 11월23일(화) 14시~17시 / 문의: 02)460-7641
곳: 서울교구청 신관 5층 교육실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및 모임 안내

1) '슬픔 속 희망찾기' 월례미사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
때: 11월20일 매월 세번째(토) 10시30분
곳: 가톨릭회관 4층 413호(명동)
2) 유가족 대상별 소모임
대상: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와 이별한 가족
때: 매주(목) 18시30분~20시30분
신청 문의 및 면담: 02)727-2495

인준단체 알림

모임

살레시오 수도회 성소상담 / 문의: 010-2042-8353
대상: 고3·일반 35세 이하 미혼 남성 / 심재현 신부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노들담교육관 1일 피정

문의: 010-3590-6319
때: 11월18일·21일·24일·28일, 12월4일·6일·11일·15일·18일 / 곳: 서울 노들담교육관

어르신 선종 피정 '죽음-웰다잉(선종) 강의·미사

때: 11월23일(화) 10시~13시 / 문의(접수): 02)766-7370
곳: 노인복지위원회 성모노인쉼터(주최, 종로3가 창덕궁 앞)

젊은이 만나Zoom 모임

내용: 말살기, 찰싹, 만나춤 퀴즈
때: 11월28일(일) 14시~17시 / 문의(접수): 010-5313-0241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ICPE 하느님 품 SoGrow 감성 피정

주제: 하느님을 찾아서 / 대상: 미혼 청년(선착순 20명)
때: 11월28일~12월4일(평일 20분씩, 토요일 120분)
회비: 2만원(비대면) / 문의: 010-8623-5482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11월19일~22일·12월3일~6일·12월10일~13일·2022년 1월7일~10일, 성도미노 수도원(주최, 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리라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6차	12월3일(금)~11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97차	12월31일(금)~2022년 1월8일(토)	
제98차	1월28일(금)~2월5일(토)	

예수수도회 청년 피정

대상: 미혼 여성 33세 이하(선착순)
안내: 카카오톡채널 '빛더하기_예수수도회'(http://pf.kakao.com/_xcHkkl) / 문의: 010-2180-6531

청년	나만의 고유함을 찾는 숙박 피정
주말 피정	12월 둘째주 셋째주(일), 메리워드 센터(오류동)
랜선 대림 피정	대림 시기 매주 1회(총4회) / 회비: 2만원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곳: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문의(접수): 010-9099-2337(www.jesumaum.org)

대림 피정	12월11일~12일	사계절 피정	12월18일
예수마음기도 4박5일	12월26일~30일		
예수마음기도 8박9일	12월26일~2022년 1월3일		
이나시오영신수련 8박9일	12월26일~2022년 1월3일		
내적여정에너그램(심화)	12월4일~5일		
생명력살리기 워크샵	12월10일~12일		
분노다루기	12월17일~19일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자연순례 피정: 11월20일~22일, 12월3일~5일, 12월11일~13일, 12월30일~2022년 1월2일(연말연시)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교육

캘리그래피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원)
블로그: blog.naver.com/pc21s / 010-5313-6554(문자)

성물조각·목세공·가구 수강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성결롬반외방선교회 대림특강 및 축복미사
지도: 양창우 신부 / 문의(접수): 02)929-2977
때: 11월27일(토) 오전 10시~12시

새천년복음화학교 146기 온라인 유튜브 개강

때: 2022년 1월25일(화) 오후 2시 / 회비: 7만원
수강문의: 02)753-8765, 02)2096-0410-0411

미국 가톨릭 사립학교 1월 입학 모집

대상: 초5~고1 / 문의: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기간: 단기 1년 또는 장기 / 백신 접종 가능
주최: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운영 미국 학교법인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영성특강(하반기)

12월 주제: 프란치스코 교황 문헌 / 강사: 박동호 신부
때, 곳: 매주(금) 15시40분~16시40분, 명례방(B1)
회비: 회차당 1만원(선착순 접수) / 문의: 02)3147-2402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 문의: 02)745-8339
원서접수: 2022년 2월9일(수)까지 우편접수 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 다운 가능)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설명회·겨울진학캠프

대상: 현 초6, 중1 / 문의: 054)338-0530

전입학설명회	12월4일(토) 14시
겨울진학캠프	2022년 1월8일(토)~9일(일)

2022학년도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2월6일(월)~17일(금) / 전형일: 2022년 1월7일(금),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석사 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 작곡), 합창지휘 전공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2년 전기(주간) 신입생 모집

2차 전형 원서접수: 11월15일(월)~25일(목)-전형일 12월11일(토)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문의: 02)705-8668(<http://gsot.sogang.ac.kr>)

석사	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
석 박사통합	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30대 청년을 위한 구약 통독

때: 2022년 1월~12월(일) 16시~18시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Zoom도 가능 / 지도: 프란치스코교회(주최) 김성태 신부
회비: 3개월 10만원 / 문의: 010-4598-6912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음악심리상담사자격증반: 11월23일~12월7일(화) 14시~17시,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회비: 15만원 / 문의: 010-4252-1165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내용: 커피의 전 과정(에스프레소·라떼아트·홈바리스타·창업·로스팅·자격증(주1회·12주))
문의: 010-9040-8306(<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coffee master)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내용: 검정고시 및 수능준비, 자기계발(메이크업·목공·보컬·영상·사진·댄스·영어대화 등) / 자원봉사자: 대학생 이상 성인, 과학·영어 학습 지도 가능하신 분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천주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강사 양성 교육(온라인 교육)

대상: 25명(상담교육사회복지유아교육 관련 전공자 우선)
때: 11월17일(수)·18일(목)·19일(금) 10시~18시 예정
주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천주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 11월15일(월)까지 접수
회비: 1만원 / 문의: 010-3262-6823(as621010@naver.com)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바라지 학교 밖 청소년 모집

대상: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 위기)
교육과정: 검정고시교육, 대안교육(인문·목공·제과·제빵·바리스타·뷰티·도예·보컬 등), 문화활동, 진로탐색 및 상담, 동아리활동 / 문의: 02)2691-6544
곳: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주최, 양천구 신원3동)
자원교사 모집: 사진, 영상편집 및 제작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jWaxbxb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뇌발달연구검사 참여자 모집

연구과제명: 청소년기 문제적 인터넷 사용과 부정적 정서에 대한 뇌영상 연구 / 대상: 인터넷 게임 및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 및 성인(만 15세 이상만 24세 이하)
내용: 뇌 구조 및 기능 MRI 촬영, 자기보고 설문검사(총 2시간30분 소요) / 실시기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중독기술제어센터(연구책임자: 전지원 교수)
참여방법: 전화상담 후 참여가능여부 안내
신경인지검사결과제공 및 교통비를 포함한 사례비 지급
문의: 010-7173-7589, 02)2258-7586

모집

cpbc소년소녀합창단 2022년 단원 모집

대상: 초2~초6 첫여성체 받은(2022년 예정인) 가톨릭 신자
오디션: 11월27일(토) 15시, 가톨릭평화방송 B1 합창단실 / 문의: 010-2650-8014
11월25일(목)까지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pbc.co.kr) 공지사항 참조

미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때, 곳: 11월15일(월) 14시~15시30분, 가톨릭회관 205-2 /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성서모임 열린미사(역삼동성당)
 청년성서모임 40대, 50대 성서가족들이 흥인식 신부와 함께하는 찬양미사 / 문의: 010-5229-9425
 때: 매월 넷째주(일) 11월28일 15시
 곳: 역삼동성당 및 온라인 / 유튜브 '열린미사' 검색

언론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전화상담 가능)

전·진·상 영성센터 / 문의: 02)726-0700
 수지애니어그램 자기 본질 찾기 및 자기인식을 위한 교육
 때, 곳: 11월19일(금) 10시~16시, 명동 / www.jjscen.or.kr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치료, 개인(우울·공황·분노·강박) 종합심리검사

제주도 관광
 제주운전기사사도회에서 가족, 효도, 단체관광,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중독 중점치료(알코올·마약·도박·인터넷 게임 등),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물자비의수녀회)

생활성서사와 함께하는 '행복한 복큰서트'
 품격 있는 나이들의 이야기
 때: 11월23일(화) 15시 / 서울시 후원
 손님: 김영선 수녀, 노사연 가수, 홍성남 신부, 김지현 아나운서 / 문의: 02)945-5987
 참여: 생활성서사, CPBC TV-유튜브(동시간 시청)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때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명절, 위령의날, 매월 합동 위령미사, 생미사 봉헌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문의 / 문의: 02)2021-2700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일 상담 가능

상처입은 마음치유와 가족관계 회복	12월11일~2022년 2월12일 매주(토) 14시~17시(7주)
전문심리치료	가족부부, 불안, 우울, 분노, 대인기피, 강박행동 등

유관단체 알림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및 모래놀이치료	가톨릭회관(명동) 501호
개인 상담	정서 및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및 심한 우울과 불안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교육	미술심리상담사자격정-11월29일~12월27일(월) 10시~15시(5회)

직원모집

서울평협 사무국 직원 모집

분야: 계약직 간사 1명(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11월15일~12월15일 15시까지 서류 접수
 서류: 서울평협 입사지원서, 교적 사본 각 1부
 홈페이지(www.clas.or.kr-알림-공지사항) 참조

우리농본부(명동) 마케팅 전문 직원 모집

온라인 쇼핑몰 및 앱 플랫폼 운영 직원 모집
 서류: 응시원서,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자기소개서(우리농 소정양식-wm.kr), 포트폴리오 / 11월21일(일) 18시까지 이메일(woorionong@catholic.or.kr)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성북동) 세탁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세탁근무자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 11월21일(일) 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 성 앵베르 센터(진관동 피정의 집) 주방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단체 급식 조리 경력 우대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천주교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부서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 11월28일(일) 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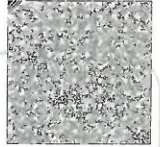
**서울주보
게재신청
안내**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 서울주보 게재 신청은 교회기관·수도회이거나,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서울대교구 사목국에 등록된 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의뢰하는 광고나 상업적인 내용은 게재할 수 없습니다.
- 게재 월로부터 한 달 전 첫째 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 한 단체에서 한 달에 4번까지 게재가 가능합니다.
- 내용 수정·취소는 주보 게재일로부터 2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 및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성모 자헌 애덕의 도미니코 수녀회	11월28일(일) 14시	수녀원(부천)	010-5166-1275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람의 딸회	수시	수녀원(경기도 양주)	010-6625-0927
스승 예수의 제자 수녀회	11월21일(일) 14시~16시	본원(미아리) 또는 Zoom	010-9816-0072(pddm.or.kr)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1월20일(토) 14시	수도원(개화동)	010-3800-1579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11월21일(일) 14시	Zoom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청년 마르코가 만난 예수!
마르코복음

곽승룡 지음
기쁜소식 | 368쪽 | 2만3천원
문의: 02)762-1194

이 책은 개인 및 그룹 성경공부 교재로 만들었다. 이 책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성을 배우는 것은 물론, 마르코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면 진정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과감히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신간

거룩함으로의 초대 3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파라클리토 성령

김동규 지음
기쁜소식 | 112쪽 | 8천원
문의: 02)762-1194

이 책은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도 오히려 성령의 은사와 활동에 대해서는 편협하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가 성령의 참모습과 그 은사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이끌어 준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이 성령의 위안과 힘을 얻어 은혜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란다.



음반

가톨릭성가
성인, 순교자-디지털 앨범

성바오로딸수도회
바오로딸뮤직
문의: 02)944-0944

스물한 개의 CD로 발매되었던 '가톨릭성가' 음반 중에서 전례 시기를 중심으로 새롭게 편집하여 발매하는 디지털 음반 가톨릭성가 시리즈 첫 정규 앨범이다. 이 앨범에는 '성인, 순교자'와 관련된 16곡이 실려 있으며, 바오로딸 인터넷서점에서 디지털 앨범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간

간추린 가톨릭 교회사

김영식 지음
불휘미디어 | 248쪽 | 1만5천원
문의: 055)244-2067

이 책은 저자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가톨릭교리신학원,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던 강의록을 교재로 엮은 책이다. 교회 역사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신자와 비신자 모두를 대상으로 가톨릭 교회사의 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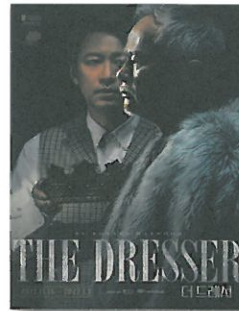


신간

새들아, 날개를 펴라
(가해, 나해, 다해)

김준년 지음 | 도서출판 나다
각 398쪽, 370쪽, 406쪽 | 각 2만천원
문의: 010-7581-6771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말씀의 선포는 미사 중의 강론입니다.” 대구대교구 김준년 신부 사제수품 30주년 기념 강론집으로 총 3권이며 가해, 나해, 다해로 구성되어 있다. 전례 시기에 따른 강론을 완벽하게 수록하고 있어 우리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연극

더 드레서

공연시간: 화~금 19시30분, 토 14시, 18시, 일 14시(월 공연 없음)
입장료: 전석 7만원 / 문의: 02)751-1941
전화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어플리케이션의 본 안내문 자참시 주보 1부로 4명 40%할인, 시니어 할인 50%(60세 이상)

로널드 하우드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연극 <더 드레서(THE DRESSER)>가 11월 16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국립 정동극장에서 공연된다. 송승환, 오만석 등 배우들의 각기 다른 브로맨스 케미와 연기의 대가들이 펼쳐내는 최고의 호흡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203 (성 바오로 사도 개종 축일)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진주교언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로구 언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예비신자는 11월 28일(주일)까지 모집합니다.

교리반	교리 시작 날짜	장소
수요반	11월 3일(수) 오후 8시~	교육관
주일반	11월 7일(주일) 오전 9시~	304호

※ 교리재교육이 필요한 교우들도 함께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 11월 16일 (화) 오전 10시

◎ 수험생 축복미사 : 11월 17일(수) 오후 7시

◎ 수험생 부모 하루 피정

일시 : 11월 18일(목) 오전 8시 40분~오후 4시 37분
 사전접수 : 이향래 세실리아 (010-7752-4976)
 회비 : 일만원

◎ 병자영성체 : 11월 26일(금) 오전 10시 미사 후

◎ 11월 위령성월 기간에 부여된 전대사

11월 한 달 내내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면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해성사 / 미사참례 및 영성체 /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주님의 기도 / 성모송 각 한 번
- *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우울증이나 과로로 지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새 삶을 열어 가는 데에 필요한 도움과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건강한 지구 건강한 사람들' 청원 서명 운동 참여 요청
 가톨릭기후행동이 연대하고 국제 '찬미받으소서 운동'이 공동 주관하는 '건강한 지구 건강한 사람들' 청원 서명 운동 안내를 드립니다. 이 청원 서명 운동에 교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청원으로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 청원 서명 용지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서명기간 : 10월 30일(토)~11월 14일(주일), 오늘까지

◎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모집

과정 :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 <http://uus.pauline.or.kr> / 2022. 1. 31. 마감
 문의 : 02-944-08192~4, 010-5584-8945

◎ 전례단 남성단원 모집

전례단에서 매일미사 독서와 해설을 담당할 남성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말씀 선포와 미사 해설을 통해 주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실 많은 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문의 : 전례단장 (010-8230-1085)

◎ 빈첸시오회 기금마련 알타리김치 판매 수익금.....2,440,000원
 ※ 도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은 리모델링 2차 현금이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 갱신 안내

- 지난 2016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동의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5년이 경과되어 금년(2021년)에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본당에 교적이 있는 가족의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받으실 분들은, 올해 안으로 책정자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각 단체 예산 신청서를 11월 21일(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신청서는 맑은고딕 서체, 11포인트, 액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체 예산 신청서 양식은 연회동성당 홈페이지 참여마당 자료실에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1. 11. 7)

총세대	책정 세대	미책정 세대	2020년 책정율	2020년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201	850	1,351	45.2%	42.0%	38.6	37.2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 ※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책정한 세대는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1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리모델링 기금 (11월 1일~7일)

누 계 921,368,861 원

◎ 감사헌금 (11월 1일~7일)

박범주 오만원 김재균 오만원
 조옥숙 일십만원 김지인 일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익 명 오만원
 최일곤 일십만원 최종문 이십만원
 조희수 오만원 조수현 오만원

◎ 우리들의 적성 (연축 제32주일)

교무금 15,030,000 원
 주일헌금 5,035,000 원
 평신도주일 2차헌금 2,062,000 원